수산업의 첨단 산업화 육성

전북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 산업 육성 · 전북형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수산분야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형 산업으로 키우는데 전북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명준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와 미래형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지역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가속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대형 국책 연구개발 사업 공동 발굴 및 유치, 상호 협력 등 6개 사항이다.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76년에 설립되어 4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1982년 기존 다이얼을 돌려 걸던 전화기를 버튼 형태의 전자식 공중전화기(D.D.D)로 국산화시켜 유명해졌으며, 최근에는 5G, 인공지능, 초연결 통신 등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집약적인 도내 양식 산업을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는 등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ICT 분야에서의 폭넓은 기술 지원으로 도내 정보화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는 '아쿠아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북도는 노령화, 노동집약적이고 가족경영 양식 산업에서 친환경·스마트 시스템으로 양식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5세대 이동통신(5G, fifth-generation) 시대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사업(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맡겨 수립 중이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사업은 아쿠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전북의 전략적 육성품종에 맞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3,5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확보, 가공산업 활성화,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아쿠아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양식현장과 똑같은 가상현실을 컴퓨터 속에 만들어 양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테스트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성장 조건을 도출하여 양식현장에 실시간 반영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 스마트양식은 사람이 설정한 값을 기계가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화 개념으로 사람의 설정값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방법이고, 아쿠아 디지털 트윈은 사람이 일정한 값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에 의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서 가상세계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양식현장에 적용하는 자율화 개념으로, 계획된 생산과 출하가 가능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종자 입식과 성장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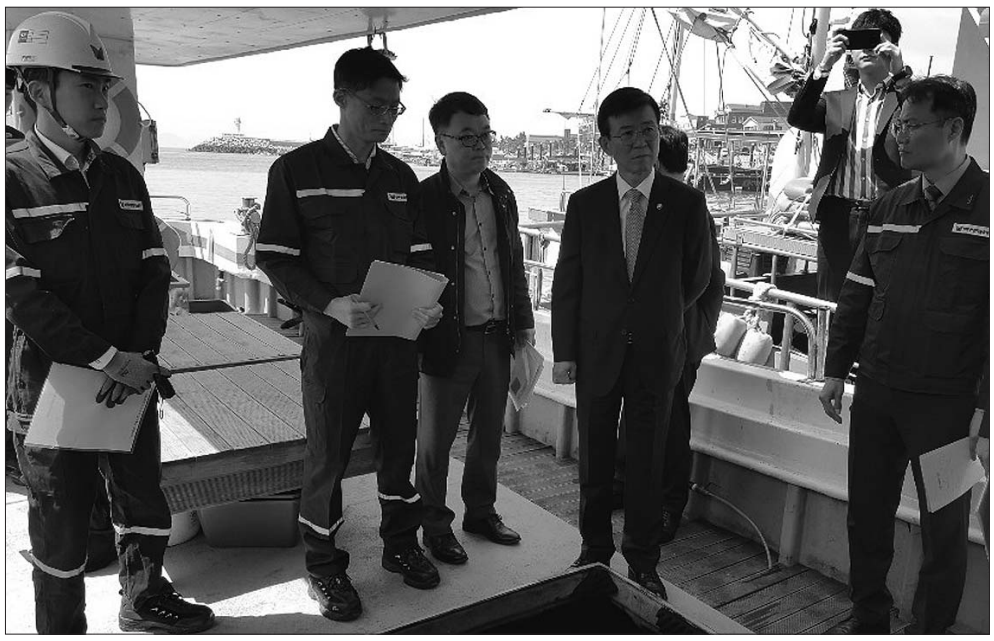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1차 산업의 특징인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폭락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식기술의 데이터산업화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양식이 가능하여 새로운 창업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공·유통·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연관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간 상생 협력을 통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략적 육성 품목을 중심으로 특성화와 차별성을 키워나가면서도, 국가적으로 아쿠아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세종에서 전국 지자체 관계자를 초청해서 아쿠아 디지털 트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역과 협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내수면양식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산업 도약을 이끌 시기이다"면서, "이번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구축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기자재, 에너지 각종 첨단기술이 집약된 표준화 모델제시로 미래성장산업의 기반 마련과 더불어, 수산연계 산업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군산 비응항에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군산 비응항 낚시어선 특별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중국 충칭시교육위원회, 전북도의회 방문… 교육교류 활성화 기대

전북도의회는 지난 10일 중국 충칭시교육위원회 '슈아이순' 부위원장과 위원, 충칭 소재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분야의 상호교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충칭시교육위원회 대표단은 지난해 10월, 충칭시에서 진행된 교육교류MOU 체결에 따른 것으로 상호 교육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송성환 의장과 슈아이순 충칭시교육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두 기관은 보다 폭넓은 의회 정보교환과 함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앞장 설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송 의장은 특히 "충칭시는 중국 남서부에서 으뜸가는 항구이자 공업 중심지로 반도 모양으로 튀어나온 바위산을 깎아 세운 도시임을 익히 들어 도시의 웅장함을 느끼는 도시"라면서 "특히 충칭대를 비롯한 많은 고등교육기관과 충칭 도서관과 시립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이 있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교류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아이순 부의장은 "전북도와 충칭시교육위 그리고, 전북도교육청의 학생교류를 통해 충칭시와 인근 청뚜 등 중국 서부지역에 전북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성환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도'와 '충칭시'의 실질적인 교육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양 지역과 양 국이 함께 성장해 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금융중심지 새모델 스케치 시작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용역 통해 금융위 제시 여건 충족 도모… 연내 구체화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위에서 요구하는 농생명·자산운용 특화 금융 모델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금일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방향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비전 및 과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용역은 지난 3월말, '2020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발주되었으나, 4월 12일자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따라 금융위에서 발표한 결과를 추가 반영하여 금회 착수보고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용역은 서울·부산과 경합하지 않는 상생의 농생명·연기금 자산운용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전략 및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며,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부족한 여건 성숙을 실천할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용역 추진으로 전북이 수립하는 가시적인 이행계획에 따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재논의의 불씨를 살리고 도민들의 염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모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가지정 보류가 결정되어, 전북의 미래비전을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핵심과제로서 지정시기의 문제이므로 이번 연구용역에 전북의 비전을 담아 재도전 할 것이며, 전북 금융도시 구축의 탄력을 받기위해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용역을 지속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확산시킨다

전북도, 산업평화모범사업장 · 산업평화대상 선정 공모

전북도는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과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사업장과 근로자·사용자, 근로자·사용자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포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5월17일까지며,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대상자는 사업장 관할 시장·군수 노사협력 담당부서, 한국·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군산·익산·전북서남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현지조사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사를 거쳐 6월중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6개소(대기업 1, 중견기업 2, 중소기업 3)와 산업평화 대상 12명(개인 6, 단체 6)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고 산업평화를 이룩한 사업장 중에서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을 선정하며 산업평화대상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사용자 개인이나 사업장(기업)·노동 단체(노동조합)에 수여된다.

지원혜택은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노사화합 증진 프로그램 사업비로 대기업 1곳 1500만원, 중견기업 2곳 각 1200만원, 중소기업 3곳 각 700만원, 총 6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산업평화 대상은 도지사 명의의 상패가 수여된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74개 기업을 선정하여 9.8억원의 재정지원 을 했으며, 산업평화 대상은 같은 기간 동안 51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사간 협력과 기업들의 상생분위기 확산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도록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